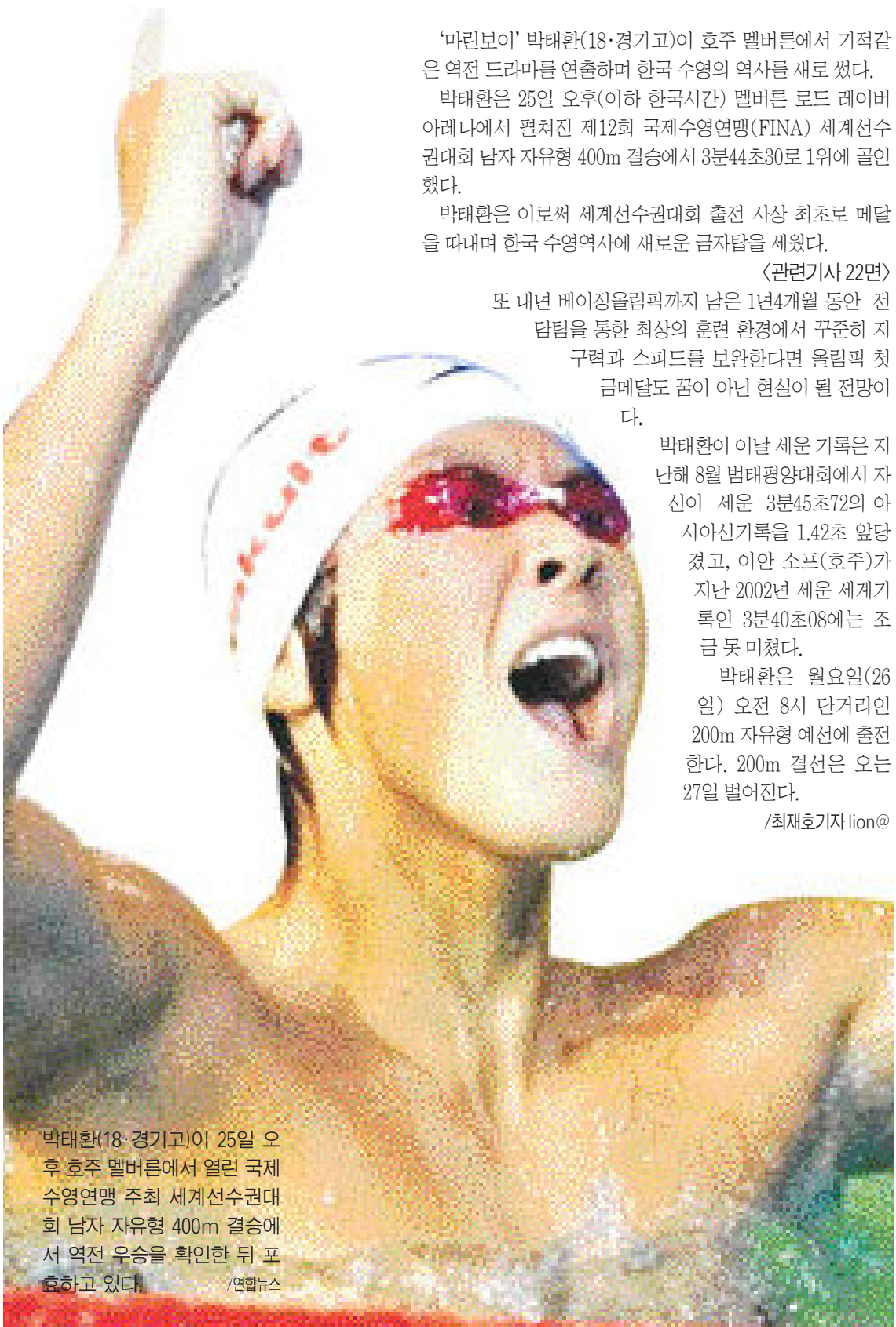


박태환 사상 첫 금

세계수영선수권 자유형 400m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호주 멜버른에서 거적같은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다. 박태환은 25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펼쳐진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4초30로 1위에 올랐다.

박태환은 이로써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사상 최초로 메달을 따내며 한국 수영역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다.

〈관련기사 22면〉

또 내년 베이징올림픽까지 남은 1년4개월 동안 전담팀을 통한 최상의 훈련 환경에서 꾸준히 지구력과 스피드를 보완한다면 올림픽 첫 금메달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전망이다.

박태환이 이날 세운 기록은 지난해 8월 범태평양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3분45초72의 아시아신기록을 1.42초 앞당겼고, 이안 소프(호주)가 지난 2002년 세운 세계기록인 3분40초08에는 조금 못 미쳤다.

박태환은 월요일(26일) 오전 8시 단거리인 200m 자유형 예선에 출전한다. 200m 결선은 오는 27일 벌어진다.

/최재호기자 lion@

박태환(18·경기고)이 25일 오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 주최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역전 우승을 확인한 뒤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FTA, 전남농업 대안이 없다

타결엔 쌀 제외 年 3,370억원 생산 감소

정부, 경쟁력 높일 법적·제도적 지원 손봐

26일 쇠고기와 농업 부문 등 미합의 핵심쟁점 일괄타결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회담이 시작됨에 따라 전남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불보듯하다.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전남도는 한미FTA가 일괄타결방식으로 체결될 경우 쌀 산업의 붕괴는 물론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가격 불안정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 사실상 전남 지역 농촌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는 농촌경제연구원 산출을 근거로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전남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은 연간 단거리로는 최소 1천781억 원에서 최

대 3천370억 원, 장기적으로는 최소 1천413억 원에서 최대 2천9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피해액 규모는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전남도의 농업생산액 중 5%를 넘는 것이다. 특히 한우산업의 경우 FTA타결로 인해 연간 생산액의 8% 수준인 36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은 연간 전남농업 생산액의 26%(1조 6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쌀을 제외 한 것이어서 일괄타결 품목에 쌀이 포함될 경우 사실상 농촌사회가 붕괴될 우려를 안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한미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한미FTA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곡물과 기타 작물 생산량은 각각 35%, 24%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상당수 농업인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는 고용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반면 면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의 경우 한미FTA 체결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처럼 FTA타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것에 대비, 기금을 통한 소득 보전이나 폐업 지원 그리고 농사를 접는 농업인에 보상금 지원 등의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경영 지원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특히 협상 마감 시한인 이

달 말 한미 FTA가 일단 체결된다는 전제 아래 피해분야 지원대책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농가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최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과 무역진흥조정법 보완, 고정직불금 지원 단가 현실화,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농산물 가공·유통산업 지원 확대,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뚜렷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협상결과에 따라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농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대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미 FTA 오늘부터 최종 담판

농업·자동차 등 핵심쟁점 ‘패키지’ 협상... 30일 결론

한미 양국이 26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

양국 정부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만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협상단 대표로 참여해 한미FTA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5일 밝혔다.

협상단은 우리측이 70여명, 미국측이 6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농업과 섬유 고위급 협상도 함께 진행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이 양자간 통상 회담을 상대국에서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타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무역촉진권한(TPA)의 효력 문제로 한국 시각 기준 31일 오전 7시(미국 시각 기준 30일 오후 6시)가 시한이 되며, 모든 쟁점이 처리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끝장 토론’ 방식이다.

현실적으로는 양국 대표단이 본국에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타결 가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만큼 30일 중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타결 의지가 굳어 30일 타결 가능성이 높지만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31일 새벽까지 타결이 늦

춰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양국은 회담 기간 상품, 농업, 섬유, 서비스, 투자, 원산지, 금융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자동차, 총칙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실무분과회의도 열기로 했다.

김 본부장과 바티아 부대표 등 수석대표는 10개 가량의 핵심 쟁점을 놓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호 요구를 주고받는 ‘빅딜’을 시도하면서 일괄타결 ‘패키지’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는 접거나 언젠가는

처리될 수 있게 추후 적절한 시점에 협의하도록 하는 빌트인(Built-in)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패키지에 들어갈 핵심 쟁점으로는 쌀, 쇠고기, 오렌지를 비롯한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방송, 시청각, 금융 분야 일시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 기간과 비위반 제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무역구제, 개성공단, 섬유 등 10개 전후로 분석된다. 특히 무역구제와 개성공단은 완전타결이 불투명해 ‘빌트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유망학원 장학 20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www.nyl.co.kr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간 변함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온 뉴욕생명-재정적 안정성, 충실성, 원본주의 원칙으로 고객과 미래를 더 행복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의 파랑새, 뉴욕생명과 만나세요! 뉴욕생명이 약속하는 행복한 미래와 키스하세요!

Kiss the Future

NEW YORK LIFE

뉴욕생명

보험상담 및 문의전화 062-236-2002

결구지점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9 KT광주정보통신 6층